

추신수 등장 부산 사직구장 '들썩' 팬 몰려 '화이팅'

취재진도 인산인해
100명 넘게 운집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추신수(39·SSG 랜더스)가 11일 오후 연습경기에 나선 팀에 합류하기 위해 사직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추추 트레인’ 추신수(39·SSG 랜더스)가 선수단에 합류한 11일 부산 사직구장. 이날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 SSG의 연습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됐지만 경기 시작 전부터 야구장이 들썩었다. 100명이 넘는 취재진이 경기장을 찾았고, 추신수의 얼굴을 잠깐이라도 보기 위해 수십 명의 팬들이 야구장에 몰려들었다.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6년 동안 메이저리그에서 정상급 타자로 활약한 추신수는 SSG와 계약하고 전격 KBO리그행을 결정했다. 프로야구 역대 최고 연봉(27억원)을 받고 SSG 유니폼을 입은 추신수는 지난날 25일 일국해 경남 창원에서 2주 간의 자가격리를 거쳤다. 입국 직후 격리에 들어갔던 추신수가 공식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라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정오에 격리에서 해제된 추신수는 이날 오후 3시에 야구장에 도착했다. 추신수가 도착하기 전 SSG 구단 관계자들은 바빠 움직였다. 팬들이 추신수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이기에 팬들이

추신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동선에 따라 펜스를 쳤다. 야구 팬들은 펜스 뒤에서라도 추신수의 얼굴을 보기 위해 좋은 자리를 잡느라 바빴다. 검은 반팔 티에 트레이닝 바지를 입은 추신수가 도착한 차량에서 내리자 모인 야구 팬이 술렁였다. 한 팬은 추신수를 향해 ‘추신수 선수 파이팅!’을 외쳤다.

추신수가 SSG 소속이기는 하지만, 부산 출신으로 고향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표현했기에 부산 지역 야구 팬들도 경기장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차량에서 내려 구단 관계자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눈 추신수는 사진 기자들 앞에서 잠시 포즈를 취한 후 경기장 안으로 이동, 1층에 있는 원정 임원실에서 경기가 끝날 때까

지 머물기로 했다. 추신수와 선수단의 첫 공식 상견례이기에 취재진의 관심도 뜨거웠다. 롯데 홍보팀에 따르면 이날 사직구장에 모여든 취재진은 취재와 사진, 영상기자를 통틀어 약 120명에 달했다. 구름에 같이 물러든 취재진에 경기 전 감독 인터뷰도 인터뷰실이 아닌 관중석에서 진행해야 했다. 보통 영상 인터뷰는 관중석에서, 취재 인터뷰는 인터뷰실에서 이뤄졌으나 이날은 관중석에서 방송, 취재 인터뷰를 나눠서 했다. 모여든 취재진을 기자실에 다 수용하지 못해 롯데 홍보팀은 스카이라이프까지 개방하고, 관중석 탁자석에도 별도로 기자석을 마련했다. 롯데와 SSG 홍보팀 관계자들도 포스트시즌 못지 않은 취재 열기에 허를 내뒀다. SSG 홍보팀 관계자는 “한국시리즈를 방불케 하는 것 같다”며 “롯데에 패를 끼치는 것 같다”고 미안한 마음을 드러냈다. 롯데 홍보팀 관계자도 “역대급으로 취재진이 많이 모인 것 같다”며 바빠 움직였다. 김원형 SSG 감독은 추신수와 첫 만남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슈퍼스타가 우리 팀에 와서 같이 생활하는 것 아닌가. 오늘이 함께 생활하는 첫날이다”며 “첫 만남을 앞두고 나도 설렌다. 선수들도 기대하고 있다. 다들 기쁘게 맞이할 것 같다”고 기대되는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뉴시스

“국제 경쟁력 향상에 주력” KLPGA 김정태 회장 취임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제14대 회장으로 취임한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KLPGA 투어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김 회장은 11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취임식을 갖고 KLPGA 투어 새 수장으로의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김 회장은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에 KLPGA는 1978년 창립 이래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세계적인 선수들이 KLPGA를 통해 탄생하며 대한민국 골프의 위상을 드높여 왔고, 골프를 사랑하는 국민에게는 감동과 자긍심, 그리고 나아가 희망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활력소 역할을 해왔다”고 돌아봤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전 세계 최초로 투어를 재개했던 지난해를 떠올린 김 회장은 “이렇게 자랑스러운 KLPGA는 올해 역시 역대 최고 규모의 시즌을 보낼 예정”이라며 “2021 KLPGA 전체 투어는 총 78개 대회, 총상금 324억 원으로 펼쳐질 예정이다”라며 개막을 앞두고 많은 골프 팬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회장은 “KLPGA가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협회 및 회원들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연금제도 도입을 통한 복리후생 제도 정착, 다양한 수익 사업 발굴 및 추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열린 협회 만들기 등도 추진 과제로 내걸었다. /뉴시스

류현진 “투구수 100개까지 올려야”

“추신수 한국행은 아쉬워”

메이저리그(MLB)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에이스 류현진이 새 시즌 개막을 앞두고 투구수를 100개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류현진은 11일(한국시간) 취재진과의 화상 기자회견에서 “개막 전까지 투구수를 100개까지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현진은 이날 진행된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시범경기 대신 청백전에 출전해 컨디션을 점검했다. 류현진은 “계획대로 잘했다. 30이닝 동안 50개를 던졌고, 볼펜에서 15개를 더 던졌다. 지난번보다 투구수와 이닝수를 늘리면서 잘 준비했다”고 소개했다. 토론토 이적 첫 해 에이스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한 류현진은 올해도 선발진의 주축으로 활약한다. 이번이 없다면 뉴욕 양키스와의 개막전 출격이 예상된다. 류현진은 “6~7이닝은 던지고 시즌에 들어가야 좋다고 본다. 맞춰서 잘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직 스프링캠프인 만큼 전력을 다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류현진은 “당연히 많이 볼 팀에게 많이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상황에 맞춰 나가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많이 보여줄 필요는 없다. 개수와 이닝수 늘리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많이 안 볼게 투수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청백전 등판을 두고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느낌이다. 좋은 타구가 나오면 타자들에게 물어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던질 수 있는 공을 내가 원하는 코스에 던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최근 KBO리그로 향한 메이저리그 선배 추신수를 향한 솔직한 속내도 밝혔다. MLB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추신수는 SSG 랜더스와 계약을 맺고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류현진은 “아쉽다. 여기에서 거의 20년을 했는데 적응이 어려울 것 같다”면서 “최고참이지만 빨리 한국야구에 적응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몇 년 더 같이 했으면 좋겠지만 아쉽다”고 말했다. 한화 이글스 출신인 류현진은 추후 자신의 KBO리그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아직 이곳에 있으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한 후 다음에 생각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프로야구도 ‘약물의혹’... 이여상 스캔들에 초긴장

KBO리그 전·현직 선수가 ‘약물 스캔들’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 전망이다.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는 11일 베테랑 투수 A와 은퇴한 투수 B가 유소년 선수들에게 약물 투약해 복역 중인 이여상에게 금지약물을 1600만원에 구매했다고 알렸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KBO리그에 등록된 현역 선수 A와 은퇴 후 지도자로 활동 중인 B는 금지약물에 대해 “즐거세포로 알고 받았는데, 아니라고 해서 다음날 돌려줬다”, “고가의 영양제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2017년 은퇴한 이여상은 유소년야구교실을 운영하며 대학 진학이나 프로야구 입단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생 선수 등에게 불법으로 유통되는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주사·판매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약물 스캔들이 유소년에 그치지 않고 프로까지 손을 뻗었다면 후폭풍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야구계도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관계자는 11일 “현역 선수 A에 대해서는 도핑방지위원회(KADA)로부터 연라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은퇴 선수 B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KADA로부터 신분 확인 등을 요청받았다. 지난 9일 KADA 제재위원회로부터 결정 통지문

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당사자가 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세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왕기춘 증인 신청 철회

왕기춘(33)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가 재판에서 현직 유도선수 및 유도 교수 등에 대한 증인 심문 신청을 철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고법판사 조진구)는 1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을 위반 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왕기춘씨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왕기춘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 전까지 현직 유도선수 및 유도 교수 등에 대한 증인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지만 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가 증인 신청 여부에 묻자 변호인은 “학교 다닌 기간이 길지 않았다. 증인 신청을 철회하며 변론 요지서로 정리하겠다”며 “지난 공판에서 요청했던 피고인 심문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사실 조회 결과가 아직 회신되지 않았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다음 달 1일 오후 2시 40분에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